

- 연두소감 -  
**사회복지학에서 이 시대의 희망을 찾는 한 해로**

일반사회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 쿠가 히로토(동지사대학)

연초부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에 의해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2024년 각각의 위치에서 새해의 시작을 맞이 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분들의 한해가 좋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점차 드러나는 피해 상황을 접하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에 재차 압도되면서도 새해 첫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재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제와 재해지역 복구에 힘쓰시는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하루빨리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실행해 나가리라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전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 (Gaza Strip) 는 전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희생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종교, 문화나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는 사회의 실현과, 갈등을 군사력이 아닌 거듭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감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모두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고 인간성에 대한 신뢰와 해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모아 한시라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매일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이후 많은 제한 속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코로나 전의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표면화 된 일본의 고독 및 고립, 생활 곤궁의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증가했다고 보도된 2020년 자살자 수 내역에서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에는 초중고생 자살자 수가 500명을 넘어 통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의 문제는 이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직장의, 학교의 일원으로서,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타인 및 장소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기반 그 자체가 위협받아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독이나 고립의 상황이라는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삶과 생활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지탱한다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를 되물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며 실천하는 사회복지학이란 사람과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함과 동시에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행동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교류나 대화를 소중히 하고, 사람과 사회가 여유를 가지며 관대함을 유지하고 회복에 기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 및 정책의 본연의 자세를 논의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관계를 이어 나가는 실천의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포섭하는 언어를 발신할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 복지학의 연구나 교육, 실천에 종사하는 우리 학회 회원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본사회복지학회가 설립된 1954년 5월로부터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해 개최된 제71회 추계대회의 주제는 '세계의 행복을 형태로 구현하는 사회복지학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세계 각지에서 재해, 생명의 위기와 관련된 기후 변화, 또 ICT나 AI의 발달 등, 세상의 다양한 역동과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사회복지학에, 이 학회에,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0주년을 맞아 새 단락을 여는 이 시점에서, 선배 학자들에 의해 세워진 역사와 축적된 그 지식을 재차 배우면서, "무엇을 위한 사회복지학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복지 학회인가"라는 본 학회의 존재 의의를 되물고, 향후의 전망을 그리는 다양한 논의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재와 그 삶은 존엄합니다. 그 존엄이 침해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학은 철저히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학문으로써의 사회복지학 원리를 되돌아보고, 사회복지학을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학회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지식(知)" 창출의 장이 되어, 기존의 지식(知)을 재검토하고,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새로운 실천의 창조로 연결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이 사람과 사회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살아있는 지식(生知)'의 체계로서, 학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고, 다듬어지고, 계승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하는 것, 그 학문에 종사하는 우리 학회원이 있으며 또한 연구 및 교육, 실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수많은 사회문제와 생활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이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발견해 나가고 싶습니다.

학회원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에도 본 학회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년도 한국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연구발표 보고

동경복지대학대학원  
사사키 타카시(佐々木 隆志)

## 일본 데이서비스에서의 '종이접기' 활용과 삶의 보람(生きがい) 창출에 관한 연구

귀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 이사 선생님들과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운영에 참여하신 많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0일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연구보고는 저희의 긴 연구생활 중 최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 동기】

1. 필자가 진행 중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이접기 재활' 연구를 세계에 알리고자 함
2. 친숙한 소재(종이접기)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개요】

본 연구는 데이서비스(한국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활용한 그룹'(N=129)과 '종이접기를 활용하지 않은 그룹'(N=108)으로 나누고, 종이접기 활용 전과 종이접기 실시 후의 신체기능에 관한 11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일본 전국에 데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종이접기 회사, 그리고 시즈오카 현립대학 단기대학부 사사키 연구실 등이 산학연계 협정서를 체결한 뒤, 이에 기반하여 실시하였다.

### 【고찰】

대응 표본 t검정 분석 결과, 종이접기를 실시한 실시군과 실시 하지 않은 미실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후 조사에서, 11개 문항 중 종이접기 실시군의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있는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문항의 분석 결과는 양(+)  
의 방향으로 유의미했다. 종이접기 실시군에서는 종이접기 실시 전보다 실시 후 '타인과 대화할 기회'가 더 많아 졌음을 경험했다. 종이접기 미실시군에서도 종이접기 이외의 데이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이접기 실시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점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 【질의응답】

남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사전에 메일로 ①종이접기 참여자 수, ②설문 도구, ③독립변수에 관한 질문(종이접기 이용 기간과 빈도, 수준 등 세부사항), ④측정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 질문 중에는 데이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입원하신 분, 데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된 분, 치매 이외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 등 다양한 노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조사 현장 상황 및 종이접기 작업 과정, 난이도,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반성했다. 남서울대학교 장동호 교수는 필자의 "앞으로는 노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잔존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앞으로 종이접기처럼 비교적 저비용이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Study of End-stage Care Management in Japan”중앙법규출판(中央法規出版)、과학연구비보조금【특정학술도서】(과제번호 : 255161)PP1-237 (2014) 의 성과의 일부임.

#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연구발표 보고

토요(東洋)대학 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  
카도시타 유코(門下 祐子)

2023년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발표자로 선정되어 국제자유발표 부문에서 발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지적장애인의 '성'에 관한 배움의 양상 - 알기 쉬운(난이도가 낮은) 출판물의 한일 비교를 통해-」로, 주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자 및 소책자 등, 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각 2권의 간행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하네야마 신스케 씨(일반사단법인 슬로우 커뮤니케이션)와 공동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하네야마 씨가 동석한 가운데 김영광 씨에게 한국어 통역을 의뢰했습니다. 발표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김영광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구 목적은 발행물의 내용과 '성'에 관한 규범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배움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일본 간행물은 '성'에 관한 주제(월경, 자위행위, 연애, 섹스, 육아 등)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 간행물은 '연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파트너와의 관계 구축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양측 간행물 모두 이성애를 전제로 한 서술이 주를 이루었지만, 일본 간행물이 하나의 고정된 라이프 코스를 제시하며 규범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간행물의 특징과 그 배경에 있는 사고방식 및 규범에 대해 지원자와 교육자들이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발표 후 지정토론자인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다양한 매체 가운데 간행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알기 쉬운 간행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다. 이 점에 대해 일본에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말해 달라"는 등의 3가지 질문을 주셨고, 이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같은 섹션에서 발표한 홋카이도대학의 연구자와 서울대 대학원생들에게도 의견과 질문을 받아, 중요한 시서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회 기간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교육 현황과 농촌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의 과제 등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등 연구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일본사회복지학회와 연구 발표를 지원해주신 동양대학교 복지사회개발연구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험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년도 한국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연구발표 보고

홋카이도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원  
장 사명(張 思銘)

일본사회복지학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술대회(2023년 10월 20일~21일)에서 자유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참가를 통해, 한국의 연구자들께서 일본을 필드로 한 연구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신선하고 흥미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중국인인 저에게 있어서, 한중일 교류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신 덕분에 논리전개 및 연구방법 등에 관해 배우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연구의 장을 만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표자로 참석하신 일본의 훌륭한 연구자와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알차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의 발표 테마는 「일본의 고령 과부 가구의 경제적 곤란: 생활 전략으로 보는 싱글 맘의 노후생활에 있어서의 빈곤에 대한 대응」(과학연구비조성금 23K18823)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일본의 고령 과부 가구로, 한부모, 여성, 고령자 등의 빈곤 위험 요인이 높은 동시에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대상입니다. 인터뷰 연구 참여자는 X시의 모자복지단체 Y에 소속된 연금수급자임과 동시에 요보호 상태(개호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상태)가 아닌 65세 이상의 고령 과부 총16명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고령 과부가 경제적 곤란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 성인 자녀로부터의 부양, 기초생활보호 수급 등의 전략을 취하는 한편, 이러한 전략으로 인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 과부의 빈곤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이지만, 이러한 선택은 경제적 곤란과 제약된 선택지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위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님으로부터 일본의 고령 과부 가구의 생존전략이 한국의 고령자 생존전략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서구권의 연구에 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연구가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의 공통된 과제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연구를 지도해주신 홋카이도대학대학원 교육학원의 마츠모토 이치로 교수님, 츠지 토모코 교수님, 토리야마 마도카 준교수님, 호쿠쇼대학 단기대학부 야스다 마키 준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발표 원고 번역을 담당해 주신 안흠단씨, 현장에서 통역해 주신 기효향씨,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학회 대회 개최 관계자 및 일본 사회복지학회 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분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翻訳

金 湊垣（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姜 守香（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修士課程）

## 번역

김호원（히토즈바시대학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강수향（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석사과정）